

전남 도내 낙지 자원회복 '고밀도 양식' 시험 확대

국내 생산량 턱없이 부족 수입량 연 3만1000톤...주산지 전남, 생산 62% ↓



낙지자원 조성을 위한 시험어장 (전남도 제공)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고소득 품종인 낙지의 자원회복을 위해 시험어장을 확대·조성하고 고밀도 양식 시험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여름철 보양식으로 사랑받는 낙지는 국내 생산량이 소비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종이다. 지난해 국내 낙지

소비량 3만 6899톤 중 수입량은 3만 1000여톤에 달했다.

전남은 전국 낙지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낙지 생산량은 3795톤으로 2018년 대비 6.2% 줄어드는 등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자원회복이 절실한 실정이다.

해양수산과학원은 2014년부터

신안을 시작으로 전남지역 16개소 101ha에 낙지 목장을 조성하고 알을 품은 어미낙지를 방류하는 시험을 통해 개체 수 증가를 확인했다.

지난해부터 보다 효율적인 양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험 운영한 '고밀도 시험어장 양식' 결과 기존 대비 낙지 서식구멍이 약 5~8배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무안과 신안에서 추진한 이 사업을 올해는 여수·고흥 등 6개 시군으로 확대, 가을부터 실질적인 사업 효과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박준택 해양수산과학원장은 "유휴 갯벌을 활용한 자연 친화적 낙지 고밀도 시험어장 양식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양식 기술 매뉴얼화로 도내 전 해역의 낙지 자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무등산국립공원 사무소, 원효계곡 일부 한시 개방 오는 18일부터 내달 16일 까지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 사무소는 원효계곡 일부 구간을 18일부터 8월 16일까지 30일 동안만 개방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이 발을 담그고 쉬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원효계곡 제철유원지 하단~인공폭포 1km 구간과 풍암정 반경 50m를 개방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사무소는 계속 입구에서 찾아가는 안전지킴이를 운영한다.

코로나19 유사증상 시민 방문에 대비해 격리장소도 지정해두기로 했다.

쾌적한 공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 드론 순찰대와 특별단속팀은 불법 주·정차, 흡연, 취사, 야영, 수영, 오토 투기 등 탐방 문화 저해행위를 강력단속한다.

전남중소기업진흥원, 목포시와 나들가게 여름맞이 공동세일전

전남중소기업진흥원은 7월을 맞이하여 "맛의도시 목포시"와 함께 "나들가게 여름맞이 공동세일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세일전은 7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목포시 나들가게 35개 점포가 참여하며, 다과류, 생필품 등 20여개의 품목을 10%~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또한, 참여점포는 구매금액에 따라 고객에게 김자반, 낙지젓갈 등의 사은품을 선착순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공동세일전을 통해 우리 시의 나들가게 매출증대와 더불어 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 명 한 명의 착한 소비가 모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공동세일전 참여하는 점포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여 많은 타격을 입었는데 이번 공동세일전을 통해 골목상권에 조금씩 활기가 돌았으면 좋겠다"며 "이 활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동세일전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진흥공단, 목포시가 주관하는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이외에도 목포시 나들가게 경쟁력강화 및 점주역량강화를 위해 점포 시설개선,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김정환 기자

광주시, '코로나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모집 264개 사업에 4314명

광주시는 1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방역 등 희망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시민 4314명을 모집한다.

희망일자리사업은 시가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지키기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시민 공공일자리사업'을 행정안전부의 희망일자리와 연계한 사업으로, 국비 328억원을 확보해 추진하게 됐다.

시는 지난 4월 생활방역 공공일자리 5개 사업에 971명 모집을 시작으로 5월 생활형 공공일자리 10개 사업 4102명을 모집한 바 있다.

희망일자리 264개 사업을 추진하며, 유형별로는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방역분야가 1772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문화·예술·공공휴식공간 등의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분야 1316명, 긴급 수요가 발생한 공공업무지원 891명, 청년지원사업 등에 335명 등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15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광주 시민으로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시민은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긴급 생계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휴·폐업자,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 등을 우선 순으로 선발한다.

신청은 15일부터 광주시 홈페이지 접속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시청, 주소지 관할 구청·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현장 신청하면 된다.

근로시간은 주 15~25시간(일 3~5시간)이며, 임금은 최저임금(시간당 8590원)을 적용한다. 근로기간은 사업에 따라 3개월 내지 4개월로 차이가 있다.

이점심 시 시민공공일자리지원센터 본부장은 "최근 코로나19 지역경제 확산으로 불안과 걱정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공공일자리가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로 참여자들의 보건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동구, 주민주도 골목재생사업 공모사업 추진

광주 동구는 골목의 활력과 미래를 충전하기 위한 주민주도 골목조성을 위한 '2020 골목재생 로컬랩 2.0' 공모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2년 차를 맞은 이 사업은 동구의 역사와 문화, 주민의 삶을 담고 있는 골목길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생활 가까이 또 다른 매력을 담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골목단위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동구만의 특화사업이다. 사업대상은 주민 스스로 선정한 골목중심점으로부터 반경 50~100m 이내 활동범위를 정한 골목상권, 보행중심의 골목이 대상으로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골목재생을 지원한다.

서구,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광주 서구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희망일자리사업은 광주시 공공일자리사업 2단계 자치구 자율형사업과 지난 6월 1일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긴급일자리제공 등 고용안정망과 사회안전망 확충'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이다.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발전 및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참여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서구 주민으로 취업취약계층(코로나19로 실직·폐업 경험자 포함), 휴업자, 무급휴직자 등을 우선선발할 계획이다.

남구, 남광주서비스 기아오토큐 모범 사업장 지정

광주 남구 관내 자동차 정비업체인 남광주서비스 기아오토큐가 '2020년 자동차 관리사업 모범 사업장'으로 선정됐다.

남구는 14일 "고객 서비스와 사업장 시설 및 환경, 고객만족 등을 평가한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남광주서비스 기아오토큐를 모범 사업장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 자동차 관리사업 모범 사업장 선정은 관내 162개 자동차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와 서류 심사, 현장 실사, 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뤄졌다.

북구, 코로나19 예방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광주 북구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고객이 급감한 소상공인 사업장에 방역물품인 소독용 스프레이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북구는 최근 전남대후문상가변영회, 외식업중앙회, 대한미용사회 등 지역 소상공인협회 관계자들을 현장에서 만나 코로나19 지역경제 확산에 따른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소상공인협회 관계자들은 방역활동 강화가 가장 필요한 지원 대책이라는 의견을 냈다.

북구는 이같은 요청에 소상공인들의 방역활동을 지원을 위해 상가 변영회, 시장 상인회, 업종별 협회 등 총 30개 단체와 협회에 소독용 스프레이 8500여개를 전달할 예정이다.

광산구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이웃 갈등 중재

광주 광산구가 14일 주민 간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업무를 시작했다.

수원동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자리잡은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는, 아파트 층간 소음, 주차 분쟁, 쓰레기 투기, 흡연, 반려견 소리 등 주민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주민 스스로 풀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주민 협력으로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다. 구체적으로 센터는 주민 간 크고 작은 갈등을 '화해조정회의'로 해결하도록 하고, 아파트 리모델링이나 친척 방문 등 문제 발생 여지가 있는 사실을 미리 알리는 '문고리 소통' 지원에도 나선다.

임형택 기자

■ 세무기장 · 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청의 인건비 →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 금지 법안이 입법되었습니다.
원시간근로는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므로,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월급	고소득층	중소득층	3분위	4분위	5분위
1.1배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의정신문사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의 의무로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하십시오.

국립노동위원회에서 세운한 슬로워크입니다.